

NOROO

NOROO

Summer. 2018



Summer. 2018

다양하게,
함께。

NOROO Quarterly Magazine | 2018년 여름 47호

NOROO



Special Theme

다양하게, 함께

06 Column

한 명의 제갈량보다 세 명의 갯바치가 낫다

08 Interview

다양성의 씨앗, 협업으로 키운다
다시 · 세운 협업지원센터

12 Information

다양성은 필요가 아닌 필수

Culture Gallery

16 Finance

생각에서 생활로, 직장인의 일상 켄테크

18 Book

책갈피 사이로 서늘함을 느끼다

20 Taste

시원함 가득한 찬 국수 한 그릇

22 Festival

음악이 파도로 밀려오는
해변의 뮤직 페스티벌

NOROO People

26 High Five

NOROO, 한마음으로 미래를 꿈꾸다
농생명 사업 부문 NOROO 문화 공유 워크샵

30 Focus on NOROO

NOROO와 토요타, 페인트로 꽃을 피우다
NOROO-TOYOTA와 함께하는
GREEN ART CAR 페인팅 클래스

34 Social Contribution

전통과 현대의 정수를 이어 새기다
소병진 소목장과 아티스트 크립틱

38 Family Time

가족의 행복이 빛나는 네온사인
(주)노루기반 영업지원팀 유승남 차장 가족

42 Special Store

제주의 아름다움은 칼라하우스의 노루페인트로
제주 칼라하우스 김병선 소장

46 News Briefing

50 1 Minute Guide

더 잘 노는 휴가를 위한 스마트한 앱

51 Behind Cut

NOROO 그룹 사보 담당자

(주)노루홀딩스 경영지원팀 조용걸 과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6 대공빌딩 13층
T:02-2191-9651

(주)노루페인트 마케팅전략팀 지남철 차장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달로 351
T:031-467-6128

(주)아이피케이 총무팀 최대섭 차장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0(국민연금 부산회관 17층)
T:051-580-8363

(주)노루오토코팅 경영기획팀 안세현 주임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장안공단 7길 28
T:031-8059-9533

(주)노루케미칼 업무지원팀 현준 대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칠단로 285번길 7
T:031-599-7276

(주)노루비케미칼 경영지원팀 이용채 주임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백석공단1로 111
T:041-620-6207

(주)노루코일코팅 회계팀 박서진 대리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달로351
T:031-467-6486

(주)노루로지넷 경영지원팀 전희경 과장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달로 351
T:031-467-6363

(주)노루알앤씨 경영지원팀 현준 대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칠단로 285번길 8-1
T:031-599-7276

(주)노루기반 인사총무팀 정석찬 대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225-14 4층
T:031-607-5560

(주)더기반 홍보디자인팀 김택수 과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231 H스퀘어 S동 712호
T:031-785-9083

다양하게, 함께

“다양성은 능력을 이긴다.” 미국 미시간 대학교의 정치학 교수 스콧 페이지는 『차이(The Difference)』라는 책에서 이렇게 주장한 바 있다. 변화무쌍한 세상에서 조직이 성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집단의 성과를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려면 최고의 문제 해결자만이 아니라 다양성을 가진 무작위의 문제 해결자들 또한 필요하다고 말한다. 칭기즈 칸이 종교와 문화가 다른 정복지의 인재들을 포섭해 강력한 시너지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이와 같은 다름의 포용, 그리고 협업이었다.

D I V E R S I T Y —————
T R U M P S —————
————— A B I L I T Y



Column	한 명의 제갈량보다 세 명의 갯바치가 낫다	06
Interview	다양성의 씨앗, 협업으로 키운다	08
Information	다양성은 필요가 아닌 필수	12

한 명의 제갈량보다 세 명의 갯바치가 낫다

미국의 경영 컨설턴트 짐 콜린스는 그의 저서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GOOD TO GREAT)』에서 위대한 기업의 공통점은 다양성이었으며 조직 내 협업이 어려워지면 기업의 존속은 점점 어려워질 것이라 주장하였다. 경영학의 대가 피터 드러커는 조직 내 소통의 문제를 기업의 단순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로 부르짖었다. 그는 리더와 팔로워, 부서 간 자유로운 협업에 일어나지 못하는 기업은 10년 이상 존속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사일로 현상과 소니

영국의 베어링 은행 사태는 구성원의 불통과 불협이 거대 기업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는지 보여주는 유명한 예화다. 1995년 2월 27일, 영국에서 가장 오래된 투자은행인 베어링 은행은 한 직원의 독선으로 인해 도산했다. 스타 펀드 매니저였던 니콜라스 레슨은 성과를 위해서는 불법도 마다하지 않는 직원이었다. 성과가 좋다는 이유만으로 제대로 된 협업과 소통 없이 그의 전횡은 묵인되었다. 그는 시장을 잘못 판단하여 무모한 투자를 했으며 오판을 거듭해 233년이나 된 조직을 파

산으로 몰고 갔다. 1762년에 설립되어 『80일간의 세계일주』에도 등장할 정도로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던 은행은 단돈 1파운드에 매각되고 말았다. 개인의 오만함이 조직의 패망을 결정지은 것이다. 최근 많은 회사들이 협업을 강조하지만, 조직 내 커뮤니케이션부터 쉽지 않다. 커뮤니케이션 단절에서 시작해 협업이 가로막히면 단순히 두 개 부서만의 지엽적인 문제가 아니라 회사 전체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한다. 휴대용 오디오 워크맨으로 성공했던 소니가 왜 아이팟과 같은 히트 상품을 만들지 못했

는지에 대한 답도 여기에 있다. 소니는 각각의 사업부가 독립적으로 개발하고 연구할 수 있도록 권한과 책임을 주었다. PC는 바이오 컴퍼니가, 워크맨은 오디오 컴퍼니가 담당했다. 그들은 각각의 기술로 비슷한 뮤직 플레이어를 따로 내놓았지만 아이팟에는 못 미쳤다. 음원 서비스 쪽으로는 소니뮤직을 가지고 있었지만 협업되지 않아 온라인 뮤직 서비스로도 시너지를 내지 못했다. 그들의 문제는 사일로 현상(Silo Effect)으로 명명될 수 있다. 사일로는 가축 사료나 곡식 등을 저장하는 원통형의 독립된 창고인데 경제계에서는 타 부서의 일에는 무관심하고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는 사업부별 상호 배타적 현상을 말한다. 소니가 각 컴퍼니의 다양한 기술과 인재가 한데 모여 소통하고 협업하도록 기회를 주었다면 어땠을까? 세계의 MP3, 온라인 뮤직 시장은 지금과 다른 구조가 되었을지도 모른다. 사일로 현상을 타파하지 못했던 소니 등 일본 전자회사들은 이후 장기간 불황을 겪어야 했다.

잡담이 혁신으로

조직 내 다양성과 협업은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창의력과 상상력 그리고 정보의 가치를 향상시킨다. 각 부문이 서로 아이디어를 모아서 시너지를 발휘할 때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다. 『지식 창출 기업』이란 저서로 유명한 일본의 노나가 이쿠지로 교수는 가장 혁신적인 제품 아이디어는 기업의 공식적인 보고서나 세미나, 업무 보고, 회의 석상의 공식적 발언 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전혀 연관성 없는 사람들이 사석에서 나누는 말도 안되는 생각들, 잡담에서 시작된다고 주장했다. 동부대우전자의 세계 최초 벽걸이형 드럼세탁기 ‘미니’의 아이디어 도출과 설계에는 디자인팀과 기술팀의 협업이 있었다. 그들은 기존 세탁기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하다가 빨래를 꺼낼 때 허리를 굽혀야 하고 내부도 잘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불평했다. 그러자 누군가가 농담처럼 “차라리 벽에 걸면 어떨까?”라고 말했고, 이에 착안하여 디자인팀과 기술팀이 함께 설계를 시작했다. 1년여 간의 개발 과정을 거쳐 출시된 제품은 2013년 장영실 상을 수상했고 지금

까지 25만 대 이상의 누적 판매량을 보여주며 4분당 1대꼴로 팔리고 있다. 경쟁력이 강한 기업은 소속된 부서와 관계없이 모든 구성원이 이해할 수 있는 공통의 용어를 가지며 이 용어는 어떤 부문에도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이를 위해서는 부서 간 빈번한 접촉과 대화가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서로 다른 부문의 사람들이 접촉하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널리 활용되는 시스템으로 임시 팀 제도나 태스크포스(TF), 프로젝트 조직 등이 있을 것이다. 서로 다른 부문의 사람들이 한 가지 구체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 한시적으로 활동함으로써 협력과 협업의 경험을 쌓고 이후에도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비공식적 협업 경로를 구축하게 되는 것이다.

과거 몽골 제국은 세력 확장 과정에서 더 나은 기술과 학문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점령지와 동맹을 맺어 자신의 힘을 키웠다. 로마 역시 정복 과정에서 적을 모방하기까지 하며 이민족의 장점을 흡수하였으며 각각의 민족에게 잘하는 분야를 맡겨 넓은 제국을 운영했다. 외부인일지라도 능력이 있으면 황제 자리를 내주었다. 다양성을 인정하고 뜻을 함께하여 협업함으로써 로마는 패권을 장악할 수 있었다. 중국 속담에 ‘한 명의 제갈량보다 세 명의 갯바치(가죽쟁이)가 낫다’는 말이 있다. 기억하자! 우리 모두를 합친 것보다 현명한 사람은 없다.

글 · 정경호

엔학고래 소통아카데미(www.enacore.co.kr) 대표, 한국표준협회(KSA) 경영전문위원, 한국생산성본부/한국 HRD 교육센터 강사, 고용노동연수원 갈등 조정 전문 교수로 활동 중이며 레퍼런스 HRD 성과관리 동기 부여 스페셜리스트이자 PSI/AMA/베가컨설팅의 세일즈 협상 전문강사이다.

다양성의 씨앗, 협업으로 키운다

다시 · 세운 협업지원센터

도시재생 계획에 따라 최근 정비된 서울 세운상가의 옥상에 서면 서울의 과거와 현재를 한눈에 볼 수 있다. 시선 끝에 걸리는 마천루들을 너른 울타리처럼 두른 세운상가에는 의료기, 전자, 조명 등 다양한 간판들이 조밀하게 걸려 있다. 종로에서 을지로에 이르는 500미터 거리의 세운, 청계, 대림 상가 일대만 해도 2,800여 개 업체들이 모여 있다. 50년 역사 속에 풍부하게 집적된 세운상가의 기술들은 한때 탱크도 만들 수 있다는 농담 같은 소문을 내기도 했다. 서울시는 이 지역과 기술의 토양에 다양성의 씨앗을 뿌리고 협업의 지지대로 창의제조산업의 4차산업혁명을 키워내고자 <다시 · 세운 프로젝트>를 가동 중이다.

<다시 · 세운 프로젝트>는 보행 재생과 산업 재생, 공동체 재생의 세 가지 도시 재생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중 세운상가군의 역사적 가치와 지역적 중요성을 지키면서 다양한 산업자원 기술의 바탕 위에 창의제조산업의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것이 산업 재생이다. 이를 위해 선택한 방법은 ‘협업’이다. 세운에 축적된 기술을 새로운 아이디어를 지닌 청년 메이커들이 다양하게 활용하고 서로 협업함으로써 창의제조산업으로의 4차산업혁명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다시 · 세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협업지원센터는 기술중개실을 마련하여 기술 장인과 수요자를 이어주고 있다. 세운협업지원센터 기술중개실에서 기술중개인으로 활동하는 박주용 박사와 세운협업지원센터 오아영 홍보매니저를 만나 새로운 시대에 더욱 필요한 다양성과 협업의 가치를 들어보았다.

<다시 · 세운 프로젝트> 협업지원센터는 어떤 일을 하는가?

박주용 박사 (이하 박) : 협업지원센터는 <다시 · 세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주체 중 하나로, 저점 공간을 운영하고 외부의 산업 주체가 기술 문의를 해 왔을 때 세운상가와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협업지원센터와 같은 전략 기관으로 세운공공 거버넌스 팀이 있으며 기존 상인, 장인 분들과 협력

한다. 세운공공 거버넌스 팀이 기존 상인, 장인들과 오랜 시간과 어려움 끝에 인터뷰를 하여 의견을 들어본 결과, 대다수가 상가의 활성화를 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노후된 시설만큼이나 기존 인력 또한 노령화되어 성장동력을 내부에서 끌어내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곳의 다양성이 일깨워지려면 외부적 자극 또한 다양해야 했다. 세운상가 기존 인력 중 엔지니어가 30%를 차지한다는 것에서 가능성과 접점을 찾을 수 있었고, 그들의 기술과 스타트업 업체의 아이디어가 만날 수 있도록 기술 중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또한 협업할 수 있는 파트너 공간, 역사의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박물관, 방문객은 물론 입주 인력도 쉴 수 있는 휴식 공간 등을 운영하고 있다. 새로운 개발과 창작의 인력이 공존할 수 있도록 메이커스 큐브를 만들어 선발 과정을 거친 업체들이 ‘세운 메이커스’로서 입주해 있다.

어떤 업체가 있고, 구체적으로 어떤 협업 결과가 있었는지 궁금하다.

박 : 세운공공 거버넌스 팀이 이 일대를 전수조사하여 기술장인을 선발, ‘세운 마이스터’로 소개하고 있다. 모두 경력이 30



년~50년씩 되는 분들로 진공관 오디오 수리, 특수 조끼 제작, 시계 조립, 파이프오르간 전기시스템 제작, 게임기 기획, 로봇 기획 등 다양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메이커스 큐브의 '세운 메이커스'로는 대화형 반려로봇, VR 촬영장비, 전자의수 등을 개발 및 제조하는 업체와 예술·디자인 실험 프로젝트, 미디어 창작 그룹 등 16곳이 있다.

협업의 결과 중 대표적인 것으로 아쿠아포닉스 실내용 소형 스마트팜이 있는데, 현재 세운 전자박물관에서 전시 중이다. 모빌리티 360° VR 하드웨어를 연구개발 및 제작하고 VR 콘텐츠를 기획·촬영·제작하는 랩앤스튜디오 보리와 카드보드를 활용한 예술과 기술 기반 교육 제품을 만들고 메이커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씨엔씨가 협업한 순환구조 농법의 수족관이자 작은 식물 농장이다. 물고기의 분변을 식물의 양분으로 사용하며 생장조건을 센서로 자동 제어한다. 이 제품 개발에 세운 마이스터 나호선 장인이 참여했다.

또 다른 팀에서는 세운 메이커스가 3D 프린터로 세운사가 모형을 만들고 세운상가의 광섬유 기술자 분이 조명을 완성했다. 누구나 기념품을 만들 수 있도록 공유하겠다는 계획이다. 외부에서 기술 중개를 의뢰해 온 사례도 있다. 제품 제작을 위한 목업 비용을 고민하는 의뢰인에게 3D 프린팅을 권유, 저렴하게 목업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왔다. 리빙 디자인 페어에 제품을 출품했던데, 아주 멋있게 나왔다. 보통, 디자이너에게 기술을 소개하면 결과에 큰 효과를 준다.

일반인들도 이곳에서 다양한 업체와 협업을 할 수 있는가?

박 : 물론이다. 기술중개실을 통해 상시적 연결이 가능하고,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 참가할 수도 있다. 최근에는 자신의 시제품을 집중 개발하고 싶은 이들이 세운상가의 자원과 세운 마이스터, 세운 메이커스 커뮤니티의 도움을 받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세운에서 만들 LAB>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참가 신청을 받았다. 이러한 협업이 발생하고 다양한 컨텐츠들이 나오게 되면 점차 세운 상가 전체에 영향을 미치리라 기대한다. 이를 위해 상인을 위한 프로그램과 주민 공모 사업도

만들고 있다. 상가 활성화를 위해 세운 메이커스 캠퍼스 등 참여 대상을 넓힌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 중이다.

오아영 홍보 매니저 (이하 오) : 지금까지는 공연, 전시, 업체 등의 정보가 곳곳에 산재해 있었는데 최근 다시세운 프로젝트의 통합 홈페이지(http://sewoon.org)를 오픈해 모든 정보를 정리해 두었다. 세운 마이스터, 세운 메이커스 큐브 입주단체, 워크숍, 전시 등의 정보를 홈페이지에서 모두 만날 수 있다.

<다시·세운 프로젝트>에서는 4차산업혁명을 창의제조산업으로 연결하여 설명했다. 세운상가는 전기로 인한 2차산업혁명, 컴퓨터의 3차산업혁명 주변부에서 커왔고, 세월의 흐름 속에서 점차 축소, 침체되었다. 그런데 4차산업혁명에서 세운상가가 담당할 역할이 있을까?

박 : 현재의 4차산업혁명이라는 용어는 인공지능의 형태와 스마트 팩토리로 정의되고 있다. 세운상가에는 그와 다른 시스템이 있다. 가시적 컨베이어 벨트가 없을 뿐 다품종 소량생산에는 최적화된 곳이기 때문에 4차산업혁명에 꼭 필요한 창의적인 생각을 구현해 줄 수 있다. 우리는 그것을 좀 더 쉽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기술뿐만 아니라 인적 네트워크도 있고, 보이지 않는 생산라인이 있기 때문에 여러 부분에서 효율과 창의성을 높이면 세운에 맞는 도심형 창의 제조산업이 될 것이다.

또한 장인들의 수작업 생산에 특화된 장소인 세운상가에 디지털제조산업을 이끄는 스타트업이 모임으로써 차세대 산업 생산의 주역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공예와 산업의 경계에 있는 메이커들의 효율을 높여 메이커 문화도 더욱 활성화시킬 것이다. 이곳은 기업과는 다른 체계로 혁신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긴 역사와 복잡성을 가진 곳이니만큼, 적응과 발전에 시간을 충분히 들여야 할 것이다.

혁신을 위해 인위적인 변화를 주기보다는 자연스러운 발전을 기대한다는 말로 들린다.

박 : 아무래도 BtoB 업체가 많으니 조심스럽다. BtoC가 많아



지면 방문객이 늘어 활성화되어 보이고, 변화의 기회는 더 많아질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만 그저 구경하러 오는 사람만 많아지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 과거 세운상가에는 엘리베이터가 없어 짐을 나르는 지게꾼이 있었다. 그런데 9층 옥상을 모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자 지게꾼이 일자리를 잃었다. 다시 수레로 업이 이어지긴 했지만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곳 역시 젠트리피케이션(낙후되었던 구도심이 활성화되면서 기존의 원주민이 내몰리는 현상)이 생길 수 있다. 보행, 산업, 공동체 재생이 고르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오 : 현재 세운상가의 지도는 조금씩 변하고 있다. 예술가 그룹이 전시장을 내고, 독립서점도 한 두 군데씩 생기고 있다. 투어를 오는 단체도 많아져서 창조경제혁신센터, 대학교의 건축과나 디자인과 학생, 초중고등학교 학생과 선생님들도 전국에서 오고 있다. 이런 변화를 보았을 때 앞으로 세운상가는 다양하고 다이내믹한 발전을 보이리라 생각된다.

박 : 이곳에는 산업의 프로세스가 자연스럽게 구축되어 있다.

이것이 자발적으로 구동되고 이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음 세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다.

세운상가는 긴 역사를 통해 기술과 노하우를 구축해 왔다. 그러나 산업의 흐름과 지역 개발의 변화 속에서 점점 고립되어 온 것도 사실이다. 주요 기술을 보유했다 하더라도 외부와 연결되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렵다. 과거 미국의 제록스 파크 연구소는 레이저 프린팅, 네트워크의 표준인 이더넷,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등 뛰어난 기술들을 가지고 있었고 서로 비슷한 구성원들의 내부 협력 또한 뛰어났지만 외부와 연결되지 못한 폐쇄적 공동체 성격 때문에 기술을 활용하지 못했다. 그들의 기술이 널리 알려진 것은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사와 연결된 후였다. 박주용 박사는 “메이드 인 세운”이라는 브랜드가 생겨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다시·세운 프로젝트>를 통해 세운상가의 구성원들이 다양해지고, 협업을 통해 촘촘하게 연결된다면 그 바람은 어려운 목표가 아닐 것이다. 세운상가에서 걷고, 만들고, 살아가는 이들이 더욱 다양해질 날의 풍경이 기대된다.

다양성은 필요가 아닌 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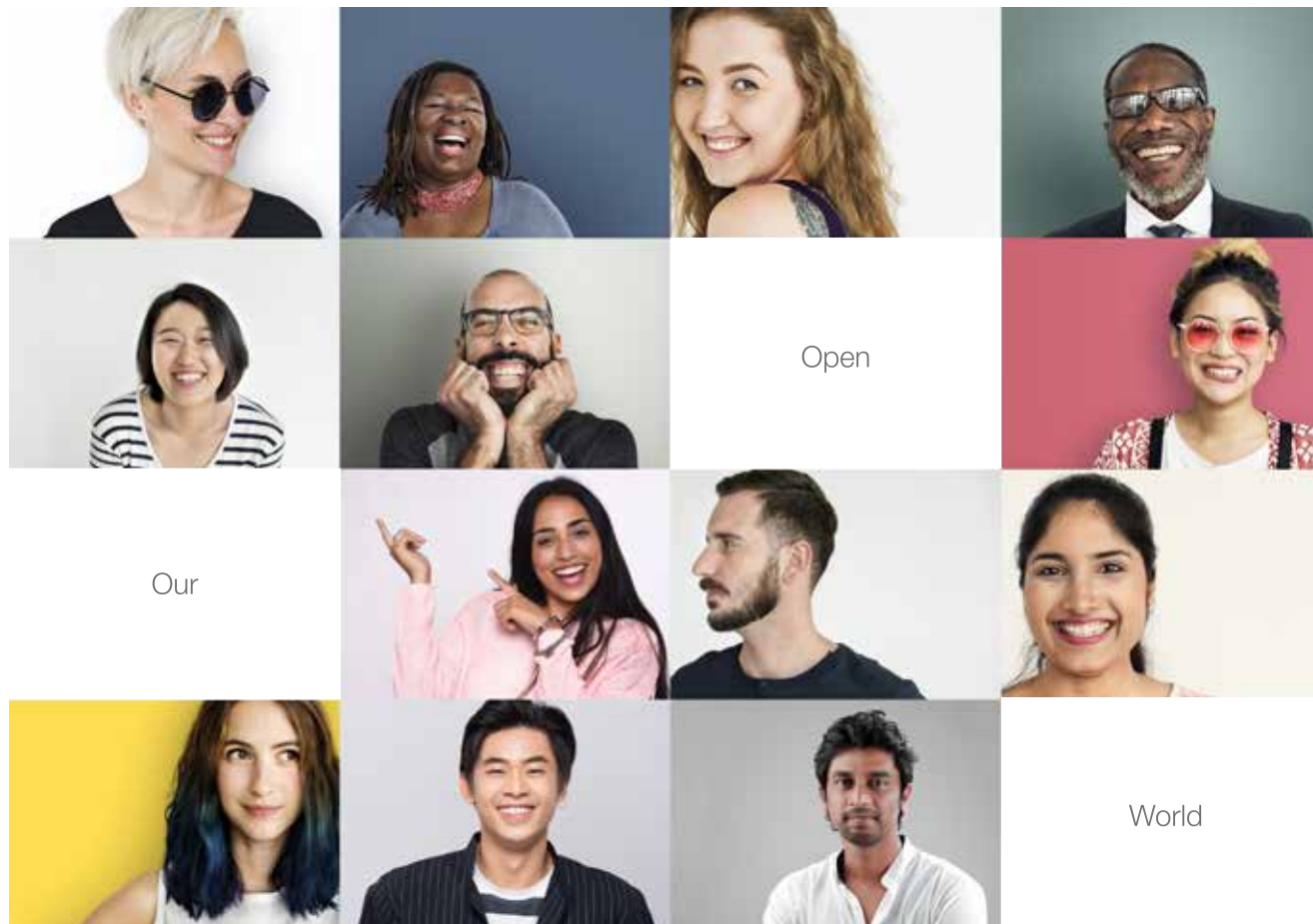
다양성은 필요가 아니라 필수다. 우리의 생명을 영위케 해 주는 자연 환경만 보아도 알 수 있다. 다양한 생물이 조화를 이루고 있기에 모든 것은 유지되고 영속성을 지닌다. 지구에서 대륙으로, 그리고 국가와 사회, 조직으로 범위를 좁혀도 다양성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 피터 드러커는 “동질적인 집단은 이미 잘 하는 일에는 뛰어나지만 새로운 정보를 논의하지 않기 때문에 변화가 어렵고 대안을 탐색하는 능력이 점차 떨어진다. 비록 경험이 부족하고 덜 유능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새 구성원을 조직에 포함시키면 조직이 더 현명해질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다양한 구성원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협업에 나설 때 조직은 더욱 강해진다.



위, 명나라 함대의 규모
아래, 명나라 정화의 함선(뒤)과 콜럼버스 함선(앞)의 크기 비교

중국의 대항해는 왜 잊혀졌을까

유럽에 의해 주도된 15세기의 대항해 시대 이전에 이미 중국에서 대원정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아는가? 콜럼버스가 첫 번째 항해를 떠난 1492년보다 훨씬 앞선 1405년부터 1433년까지 명나라의 정화는 7차례에 걸쳐 동남아시아와 중동, 아프리카까지 원정하였다. 그런데 왜 정화의 이름은 역사 속에서 사라졌을까? 이는 황제가 지배하는 단일체제의 중국과 여러 나라가 경쟁하고 있던 유럽의 차이로 설명할 수 있다. 정화는 명나라 황제인 영락제의 명령으로 원정을 시작하여 성공했으나 황제 사후 실세들이 “중국 자체가 지대물박(땅이 넓고 산물이 많음)한데 항해 원정은 국력 낭비다.”고 주장하며 원양항해를 금지하여 더 이상의 활동을 할 수가 없었다. 콜럼버스의 경우는 달랐다. 이탈리아에서 태어났지만 원정을 위해 포르투갈 왕을 찾아갔고, 그곳에서도 뜻을 이루지 못하자 에스파냐 여왕을 찾아가 협력을 받아내었다. 대항해 시대의 또다른 탐험가인 마젤란 역시 자국의 왕이 자신의 계획에 관심이 없자 에스파냐로 건너가 협조를 받았고 최초의 세계 일주 항해 기록을 남겼다. 『충, 균, 쇠』의 제레드 다이아몬드 교수는 이러한 중국과 유럽의 격차에 대해서 지리환경적 요인을 들어 설명한다. 산과 강이 복잡하게 얽힌 유럽은 분열이 자연스러워 결과적으로 각 나라가 경쟁을 통해 다양성을 키워갈 수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단조로운 지형이었던 중국은 단일제국이 통치하며 다양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이다.¹ 다양성이 많은 기업이 획일화된 기업보다 훨씬 큰 성과를 낸다는 2015년의 맥킨지 보고서에 15세기의 유럽과 중국에도 적용될 수 있다.



내 혈관 속 다양한 DNA

덴마크의 여행사 모몬도의 특별한 이벤트 <Let's Open Our World>가 유튜브에서 화제를 모은 바 있다. 모몬도는 각기 다른 국적의 사람들을 모아 조국에 대한 자랑스러움, 타 민족이나 타국에 대한 감정 등을 들은 후 그들의 유전자 검사를 의뢰, 인종을 분석해 주었다. 검사 결과를 위해 다시 모인 참가자들은 자신을 구성한 민족의 다양성에 놀라움과 허탈감 등을 느끼며 눈물을 흘리기까지 했다. 영국인인 것이 자랑스럽고 독일을 싫어한다면 한 영국인은 자신의 유전자 중 5%가 독일에서 왔음을, 프랑스인임에 큰 자부심을 가졌던 이는 자신이 32%의 영국인임을 알고 충격을 받았다. 터키 정부를 증오하던 쿠르드 인에게는 옛 터키인의 피가 흐르고 있었다. 이벤트에 참가한 이는 “이전 모든 인류에게 의무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자신의 뿌리가 얼마나 다양한 갈래로 뻗어 있는지를 알면 극단주의자들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자신에게 내재된 다양성을 확인케 한 이 이벤트는 타인과 타국에 대해 마음을 열게 만들었다. 이 검사는 한국에서도 유용할 것이다. 한국인은 ‘단일민족’임을 내세우는

데, 이는 일제 강점기에 국민들이 구심점을 갖고자 만든 희망의 끈이었을 뿐이라고 정현천 작가는 『포용의 힘』에서 말한다. 역사 속에서 우리는 침략 또는 문화 교류를 통해 이방인이 유입된 기록을 만날 수 있다. 실제로 한국인들의 유전자에서는 중국과 일본인, 멀리 유럽인의 것도 발견된다. 박기현의 『우리 역사를 바꾼 귀화 성씨』를 보면 네덜란드 출신 벨테브레, 왜장 사야가, 아유타국의 허황옥, 이성계의 오른팔 이지란 등 다른 나라, 다른 민족 출신의 귀화인들이 나온다. 선조들은 이들에게 적극적인 동화책을 써서 이름을 지어 주고 벼슬을 주기도 했다.² 어쩌면 지금보다 더 넓은 마음으로 포용하고, 배우고, 활용한 것이다. 현재 우리는 ‘다문화’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여러 정책을 펴고 있다. 그러나 혹시 다문화라는 이름으로 경계를 세우고 단일민족과는 ‘다른 문화’로 치부하며 그들에게 한국 문화만을 강요하고 있는 건 아닌지 살펴볼 일이다. 타 문화를 받아들이며 한국 문화의 저변을 넓힐 때 ‘다문화’라는 말은 더이상 필요치 않을 것이다. 단일민족의 편견에서 벗어나 모두가 다양하고 동등한 구성원임을 인식할 때 차별은 더 빨리 사라지고 협력은 더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 INFORMATION

감자와 바나나가 사라진다면

피터 드러커의 말은 생물의 다양성에도 적용된다. 자연계 내에서도 다양성이 부족하면 위기 극복이 어렵다. 19세기 중반, 아일랜드에서는 대기근으로 전체 인구 800만 명 중 200만 명이 사망하고 100만 명이 이민했다. 참혹한 기근은 소작농들의 주식이었던 감자에 역병이 돌며 시작되었다. 감자의 품종이 다양했다면 일부는 피해갈 수 있었겠지만 모두 '럼퍼'라는 단일 종자를 같은 유전 형질로 키웠기에 전염병에 취약했다. 결국 내성이 강한 다른 품종이 들어오기까지 농민들은 속수무책으로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다.

이와 비슷한 경우를 바나나에서도 찾을 수 있다. 현재 전세계에서 가장 널리 재배되고 있는 바나나 품종은 캐번디쉬다. 그전에는 그로스 미셀이란 바나나가 주종을 이뤘는데, 곰팡이병에 걸려 사실상 멸종되었다. 꺾꽂이 방식으로 번식되어 거의 동일한 유전자를 지닌 탓에 대기근 때의 감자처럼 전염병 앞에 죄다 스러진 것이다. 그로스 미셀 멸종 후 다국적 기업들은 현재의 캐번디쉬 품종을 만들어냈지만 이 또한 단일 유전자라 최근 전염병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유전적 다양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미래에는 바나나가 전설 속의 과일이 될 수도 있는 일이다.

반대로 다양한 농업 유전자원은 먹거리를 지키고 품종의 개량을 도우며 경제적 가치도 낳는다. 우리나라의 토종 애플은행이 밀은 키가 작은 특징이 활용되어 국제맥류옥수수연구소의 밀 생산량을 8배나 늘렸다. 미국은 과거 우리나라에서 다양한 콩을 수집해 가서 비린내 없는 콩, 소화력이 높은 콩 등 콩 육종의 주요 인자로 활용했다. 멕시코의 야생 옥수수종은 병충해에 강한 옥수수를 개발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호지킨 병과 어린이 급성 백혈병을 치료하는 빈블라스틴과 빈크리스틴은 마다가스카르의 식물에서 추출되었다. 미국은 유전자원에서 얻는 의약품의 가치가 759억 달러에서 1,500억 달러까지 추정된다고 발표한 바 있다.³

이렇듯 자연계의 다양성은 인간에게 필수적이다. 생명다양성재단의 대표인 최재천 교수는 “자연계를 구성하는 모든 종들은 다 상호의존적이기 때문에 그 균형을 깨는 일은 어느 구성원에게나 궁극적 이득이 될 수 없다.”며 언제 어떤 종이 사라졌을 때 생태계 전체가 와르르 무너져 내릴지 아무도 모른다고 말했다. 다양성의 한 부분인 인류는 생물다양성을 지켜가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1, 2. 『포용의 힘』, 정현천, 트로이목마, 2017

3. 『생물다양성은 우리의 생명』,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기획, 공리, 2010



CULTURE GALLERY

태양의 각도가 수직으로 올라서고
머리 위로 열기를 쏟아붓는 이맘때면
벌써 한해가 이만큼 지나갔나 싶습니다.
이럴 때 휴식의 시간이 있어 참 다행이지요.
초조한 마음을 시원하게 식히고
새로운 나날을 향해 다시 한번
속도를 내어 봅니다.



생각에서 생활로, 직장인의 일상 짠테크

누구나 부자가 되고 싶고, 그 방법을 알고 싶어한다. 서점에는 재테크 관련 서적이 가득하고 온라인의 카페와 블로그도 셀 수 없이 많다. 그런데 상상 속의 부자는 어떤 모습인가? 돈을 마음대로 펄펄 쓸 수 있는 사람을 부자라 한다면, 현실적으로는 부자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있으면 있는 대로 더 쓰게 되는 것이 돈이다. 그러므로 직장인에게 부자란 어느 정도의 급전과 노후 자금을 가진 모습이 현실적이다. 이를 위한 방법은 사실 단순하다. 더 많이 벌거나 더 적게 쓰는 것이다. 더 버는 것이 쉽지 않고, 예전처럼 부동산이나 주식 투자로 수익을 내기도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에 남은 방법은 더 적게 쓰는 것이다. 일상에서 이를 실행하지 못하면 이상 속의 부자는 물론, 현실의 부자 또한 허상일 뿐이다.

글 · 최돈호

첫째. 흐지부지 사라지는 돈을 없애라

“만약 당신 가정의 현금 흐름표를 작성한다면 수입과 지출 중 어느 쪽이 많을까요?” 라는 질문을 던지면 사람들은 거의 “지출”이라고 대답한다. 하지만 막상 결과를 보면 수입이 많은 가정이 대부분이다. 늘 일정한 수입액은 적다고 느껴지고, 그걸 쪼개 쓰는 지출액은 다양한 변수를 지니고 있으니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아 많게 느껴지고 불안스럽다. 매년 연말정산을 할 때면 ‘우리가 이렇게 많이 벌었다고?’ 하고 놀라고 이내 ‘그런데 다 어디 갔지’ 하고 씁쓸해지는 것도 같은 이치다. 이처럼 흐지부지 없어지는 돈을 ‘누수자금’이라고 한다. 차라리 사치를 했거나 즐기더라도 했으면 억울하지나 않을 텐데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열심히 아끼고 사는데도 돈이 모이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 누수자금이 많기 때문이다.

뻔한 이야기이지만, 누수자금을 줄이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예산’에 따라 지출하는 것이다. 그런데 예산을 세우다 보면 ‘뭐하러 이렇게 뽀뽀하게 사나’ 싶다. 이때 필요한 것

이 목표다. “다음 휴가 비용을 만들자”, “낡은 가전을 새로 바꾸자” 등 크고 작은 목표 아래 저축금액을 정한다. 그리고 수입에서 저축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으로 예산을 세워 한달 간 생활해 보자. 그후 지출내역을 적어서 예산과 비교해 보고, 예산이 지나치게 보수적일 경우 예산을 수정하고, 지출이 과도했다면 다음달에 해당 항목의 지출을 줄이는 방식을 3개월 정도 반복하면서 최종 예산을 확정해 실행한다. 많은 이들이 가계부에 지출내역만 열심히 기록하는데 예산이 없는 가계부는 큰 의미도, 효과도 없다.

예산대로 살다 보면 궁색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여기에 의미를 덧붙이면 재미있게 극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최근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잡은 ‘냉파’, 즉 냉장고의 식재료가 다 떨어질 때까지 장을 보지 않고 있는 재료로만 식사를 하는 ‘냉장고 파먹기’ 방법은 절약과 함께 버려지는 음식물을 줄여 환경도 돕는다. 또 한달 용돈을 30으로 나눠 매일 한도 내에서 지출하면 지갑은 물론, 자유 시간도 관리된다. 일주일에 하루는 ‘노페이데이’로 최소한의 교통비를 제외하고 지출하지 말아보자. 일단 영수증, 포장비닐 등 나로 인해 발생하는 쓰레기도 사라진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저축 알림 메시지를 보내주는 <KEB하나은행 오늘은 얼마나 적금>, 커피 마시고 싶을 때 앱을 누르면 5천 원씩 저축되는 <KB라떼 연금저축펀드>, 매일 자투리 돈을 스마트폰으로 저축하고 연 4%로 운용할 수 있는 <신한 한달췌 저금통>, 한 달간 매일 1,000원씩 입금액을 늘려 저축하는 <우리은행 위비 잔테크 저금> 등의 금융상품을 활용해 보는 것도 좋다.

둘째, 실속을 위해 차와 신용카드는 멀리하라

실속 있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자동차와 신용카드이다. 자동차는 사는 순간 감가상각이 되고, 보험료, 세금, 유류비 등 각종 유지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소모적 자산이다. 가능하면 구입시기를 가급적 미루는 것을 권하고, 구입하더라도 교통수단 외의 가치 부여를 하지 말자. 신용카드는 자신의 능력 이상의 과소비를 이끌고 지출 규모에 대한 감각을 무뎌지게 한다. 오랜만에 친구들과 식사를 하고 10만 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과 지갑 속에서 만 원짜리 10장을 꺼내 지불하는 것은 심리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 어떤 이들은 현금보다 편리하고, 지출내역을 관리할 수 있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다양한 할인 혜택과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다고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를 나열한다. 하지만 10% 할인쿠폰 때문에 계획에 없던 레스토랑에 가거나, 물건을 구입하거나, 영화를 본다면 예산대로 지출하는 데 차질이 생긴다. 번거롭더라도 현금을 사용하는 것에 도전해 보자.



매일의 생활비를 봉투에 넣어 사용하고 남은 돈은 저축하는 봉투살림법이 새롭게 각광받고 있다. 모든 금융기관과 연계된 가계부 작성 앱으로 소비 내역을 분석할 수 있고 과소비를 경고해 주는 <뱅크샐러드> 등도 도움이 된다. <팔라고>와 같은 기프트콘 거래장터 앱을 이용하면 20~50% 저렴한 가격에 필요한 쿠폰을 구매 즉시 사용할 수 있고, 잠금화면을 밀거나, 영상광고를 시청하거나, 설문조사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적립해 주는 리워드앱도 쓸쓸한 재미를 느낄 수 있다.

셋째, 정갈한 습관은 돈을 부른다

정갈한 습관은 잔테크에도 도움이 된다. 주중에 고생했다며 늦잠을 잔 주말, 늦은 식사를 하고 나면 무언가를 도모하기에는 애매한 시간이 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습관처럼 마트에 간다. 그리고 ‘안 그래도 저거 필요했어’, ‘어차피 사 두면 쓸 거니까’ 하며 예산에 없던 쇼핑을 한다. 아침 일찍 가족과 산책을 하거나, 가까운 산에 오르거나, 아니면 차라리 여행을 가는 것이 같은 돈을 쓰더라도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다. 자녀와의 시간을 위해서 작게는 몇백만 원에서 많게는 천만 원이 넘는 장비를 구비해서 캠핑을 가는 대신 함께 서점이나 도서관을 가는 것은 어떨까? 유명 맛집을 가는 것도 좋지만,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가보는 것은 어떨까? 비록 지금은 아파트를 살 돈이 없더라도 모델하우스를 다녀보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정보를 얻고, 시야도 넓어지며, 잊고 있던 욕심도 생겨 일석삼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새로운 전자제품이 아니라 최신 금융상품이나 재테크 노하우에 앞서가는 열려답답터가 되어 보는 것을 어떨까? 재테크 관련 카페나 커뮤니티에 가입해서 활동하는 것도 새로운 정보를 공유하거나 느낀해지는 마음을 다잡을 수 있어 도움이 된다. 생각과 함께 생활 습관을 바꾸면 절약도 하면서 지금보다 훨씬 의미 있고 정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직장인의 가장 큰 재테크는 자신의 몸값을 올리는 것임을 잊지 않아야 한다. 기본적으로 건강을 지키기 위한 노력과 미래를 위한 투자에는 아낌이 없어야 하고, 더 오랫동안 더 많이 벌 수 있도록 착실하게 준비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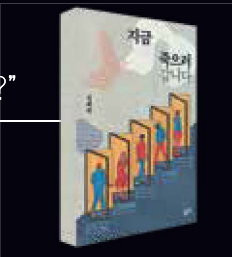
휴가철 가방 속에 꼭 챙겨야 할 것은? 선크림, 선글라스, 모자와 함께 책 한 권은 필수다. 막히는 차 안에서, 인파 속에 대기하면서, 하릴없는 그늘 속에서 책은 번잡함을 잊게 하고 여유를 증폭시킨다. 굳이 어디론가 떠나지 않아도 책 자체가 휴가가 되기도 한다. 펼치는 순간 다른 세계로 빠져들기 때문이다. 이번 여름에는 서늘한 추리와 미스터리로 세계로 휴가를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 책갈피 사이로 한기가 스며 나오는 소설들을 소개한다.

책갈피 사이로 서늘함을 느끼다

“다섯 명의 자살자, 그러나 한 명은?”

지금 죽으러 갑니다

정해연 / 황금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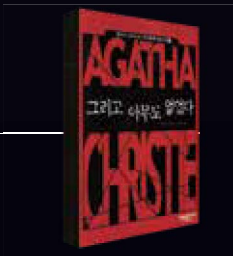


기억을 모두 잃은 채 병원 침대에서 눈을 뜬 태성. 그는 자신의 고달픈 현재 신분을 알고 인터넷 자살 카페에 사연을 올린다.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네 사람과 함께 죽기로 약속하고 마지막 여행을 떠난다. 그러나 외딴 산장에서 벌어지는 예측 불가의 사건들을 통해 서로의 욕망과 비밀, 속마음이 드러나고 자살 직전의 불안한 동거는 생각 외의 방향으로 굴러가기 시작하는데.... 과연 최후까지 살아남는 자는 누구일까? 한국 추리계의 유망주로 부상한 정해연 작가는 전작에서 “한국 사회를 예리하게 투영하는 섬뜩한 묘사가 압권”이라는 평을 들은 바 있다. 이번 작품에서도 ‘집단 자살’이라는 주제를 통해 OECD 국가 중 자살율이 1위라는 한국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조명하고 있다. 동반 자살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쾌락 살인마를 만나 아이러니하게도 살고 싶어지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여름 한낮의 더위는 어느 순간 저녁의 소슬바람이 되어있을 것이다.

“이제 너만 남았어.”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애거서 크리스티 / 해문출판사



추리소설의 명작, 고전 중의 고전인 작품이다. 아마존이 선정한 <일생에 읽어야 할 100권의 책>에 선정된 바 있는 이 책은 추리소설의 여왕 애거서 크리스티의 작품 중에서도 스릴과 서스펜스가 가장 뛰어나다고 인정받는 걸작이다. 정체불명의 사람에게 초대받아 인디언 섬이라는 곳에 8명의 손님이 도착하며 이야기는 시작된다. 그들을 맞이한 하인 부부까지 모두 10명인 사람들은 차례로 한 명씩 죽어가고, 그때마다 식탁 위에 있던 10개의 인디언 인형도 하나씩 사라진다. 과연 범인은 누구일까? 10명의 기억 속에 묻혀 있는 범죄의 그림자, 그들의 다양한 직업과 성격을 애거서 크리스티는 치밀하게 연결시켜서 죽음으로 교묘하게 이끌어 나간다. 섬세한 구성, 대담한 문체, 긴장을 늦추지 못하게 하는 기교가 놀랍다. 처음부터 끝까지 책장을 덮지 못하던 독자들은 범인을 알게 되는 순간, 피가 얼어붙는 느낌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작품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미스터리 소설로 꼽힌다.

“현실이 오싹해지는 공포와 유머”

악몽을 파는 가게

스티븐 킹 / 황금가지



이야기의 제왕, 스티븐 킹의 미출간 신작들을 모은 최신 단편집 『악몽을 파는 가게』도 이번 여름에 놓칠 수 없는 공포 소설이다. 2016년 에드거 상 단편 소설 부문에서 최고 소설상을 받은 『부고』를 포함한 총 20편의 색다른 이야기들을 통해, 스티븐 킹은 익숙한 주제를 어디까지 능수능란하게 다룰 수 있는지 유감없이 펼쳐 보인다. 각 단편마다 스티븐 킹 본인이 직접 쓴 자전적인 논평이 함께 수록되어 있어 그 작품을 구상하게 된 계기나 작가의 과거지사 등 다양한 이야기를 함께 읽을 수 있다.

이 단편집은 출간과 동시에 베스트셀러가 되었으며 스티븐 킹을 제외한 어떤 작가도 이토록 평범한 현실을 오싹하게 탐구할 수 없을 것이라는 언론의 찬사를 받았다. 특히 이번 단편집의 매력은 일상에서 흔히 있을 법한 주제를 비틀어서 공포로 바꾸는 스티븐 킹다운 이야기 전개에 있다. 휴게소에 정차되어 있는 지저분한 차가 사실은 사람을 잡아먹는 미지의 생명체라든가, 아마존 킨들을 통해 다중 우주에 접속하는 이야기 등 주변 소재에서 오싹한 공포를 불러오는 그의 특기가 유감없이 발휘된 이번 작품집으로 스티븐 킹은 셜리 잭슨 상을 수상했다.

“애절하고 애처롭고 애뜻한 귀신들”

삼귀

미야베 미유키 / 북스피어



일본의 대표적인 미스터리 작가 미야베 미유키의 최신작 『삼귀』는 과거의 에도를 배경으로 한 <미시마야 시리즈> 중 네 번째 책이다. 에도의 작은 가게, 미시마야는 주머니를 팔고 기이한 이야기를 모은다. 사람들은 가슴 속에 맺힌 이야기를 털어놓고 평온을 얻어 가는데 『삼귀』에서는 죽은 가족을 그리워하던 화가가 불러낸 기이한 귀신, 고립된 산간마을 사람들을 도와주던 애절한 귀신, 향료가게를 보살핀 서글픈 귀신의 이야기가 다채롭게 펼쳐지며 읽는 동안 귀신이 옆을 스쳐가는 듯한 한기와 함께 묘한 온기를 느낄 수 있다.

이 책은 아마존 재팬에서 별 5개 만점에 4.8개를 받는 등 독자의 호평을 누리고 있다. 미야베 미유키는 “괴담을 좋아해서 이 시리즈를 쓰는 것은 항상 즐겁지만 이번 작품은 다양한 종류의 이야기라 더욱 즐거웠다. 앞으로도 일종의 카운슬링 역할을 하는 미시마야 시리즈를 쓰겠다.”고 하며 몸이 떨리고 마음이 정화되는 특이한 괴담을 이어갈 것임을 밝혔다.

시원함 가득한 찬 국수 한 그릇

여름은 온도와 습도에 반비례하여 식욕을 잃게 되는 계절이다. 더위 속에서는 음식을 만들고 차리는 것은 물론 먹는 것도 종종 고역이다. 그래서인지 여름에는 한 그릇 음식인 국수를 자주 찾게 된다. 살얼음 띄운 냉면과 짭짤한 모밀, 고소한 콩국수, 매콤한 비빔국수 등 차가운 국수는 여름의 입맛을 살아나게 하고 식사 후에도 시원한 여운을 준다.

자료 제공 · 『찬국수』, 용동희, 그린북



콩국수

콩을 반나절 불리고 삶는 번거로움 없이 두부를 이용해서 만드는 간단 콩국수. 아이와 어른에게 모두 좋은 영양 국수다.

재료

소면 2인분, 우유 1+1/2컵, 두부 1/2모, 방울토마토 2개, 오이채 조금, 땅콩 조금, 소금 조금

국수 만들기

1. 믹서에 두부와 우유를 넣어 갈고, 소금으로 간하여 병창고에 넣어둔다.
2. 땅콩은 굵직하게 다지고, 소면은 삶아서 찬물에 행군다.
3. 소면을 그릇에 담고 위에 오이채, 방울토마토, 땅콩 다진 것을 올린 다음 시원한 콩국물을 붓는다.
* 두부에 우유 대신 두유를 넣어 함께 갈아도 좋다.



열무비빔국수

잘 익은 열무김치로 깊은 맛을 낸다.
새콤한 열무김치에 살짝 단맛을 더하면
더 입맛이 돋는 열무국수가 된다.

재료

소면 2인분, 열무김치 2컵, 삶은 달걀 1개, 참기름 조금, 통깨 조금, 양념장(고추장 2큰술, 사과즙 3큰술, 열무김치 국물 4큰술, 설탕 1+1/2큰술, 식초 1큰술, 간장 1큰술)

국수 만들기

1. 열무김치를 먹기 좋은 길이로 자르고, 삶은 달걀은 2등분한다.
2. 양념장 재료를 모두 섞고, 소면은 삶아서 찬물에 행군다.
3. 소면을 양념장에 비벼 그릇에 담고, 위에 열무김치와 삶은 달걀을 올린 다음 참기름과 통깨를 뿌린다.

오이미역냉소면

미역과 오이를 양념에 조물조물 무쳐
시원한 육수를 부어 먹는 냉국에 소면을
넣어보자. 한 그릇 푹딱 비우게 되는
든든한 여름 국수다.

재료

소면 2인분, 오이 1/4개, 불린 미역 1/2컵, 홍고추 1개, 국간장 2작은술, 다진 마늘 1작은술, 통깨 조금, 냉국 국물(다시마 육수 2+1/2컵, 식초 3큰술, 설탕 2큰술, 국간장 2작은술, 소금 조금)

국수 만들기

1. 오이는 곱게 채썰고, 홍고추는 어슷썬다.
2. 미역은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물기를 쥔다.
3. 냉국국물 재료를 모두 섞어 차게 냉동실에 넣어 둔다.
4. 오이, 미역, 홍고추에 국간장, 다진 마늘, 통깨를 넣어 무친다.
5. 소면을 삶아서 찬물에 행군다.
6. 소면을 그릇에 담고 오이와 미역, 홍고추 무친 것을 올린 다음 냉국 국물을 붓는다.



깨소스우동

고소한 맛의 땅콩소스는 해산물이나
육류에 모두 잘 어울리는 소스다.
일본 된장 미소를 넣어서 감칠맛을 살렸다.

재료

우동 2인분, 칼데일 새우 10개, 오이 1/2개, 방울토마토 4개, 미나리 1/2줄, 삶은 달걀 2개, 소스(땅콩버터 1+1/2큰술, 미소 1/2큰술, 다시마 육수 2큰술, 식초 2큰술, 맛술 1/2큰술, 쓰유 1작은술, 시치미 1작은술, 통깨 1작은술, 설탕 1작은술, 소금 조금)

국수 만들기

1. 새우는 끓는 물에 살짝 데친다.
2. 오이는 어슷하게 썰고, 방울토마토는 2등분하며, 미나리는 3cm 길이로 자른다.
3. 삶은 달걀은 0.5cm 두께로 얇게 썬다.
4. 소스 재료를 모두 섞고, 우동은 삶아서 찬물에 행군다.
5. 우동을 그릇에 담고 삶은 달걀, 새우, 오이, 방울토마토, 미나리를 올린 다음 소스를 끼얹는다.



『찬국수』 (요리 · 용동희 / 그린북)

차가워야 맛있는 국수 레시피 노하우 55종을 소개한 『찬국수』는 간식과 식사, 파티 요리로도 손색이 없는 찬 국수 요리의 모든 것을 담은 책이다. 육수를 내는 방법과 보관법, 만들어 놓으면 좋은 기본 양념장과 소스를 만드는 방법, 간단하게 시판 제품을 이용하는 노하우와 다양한 고명 만들기, 찬 국수와 함께하면 좋은 음식, 국수를 담는 방법과 내는 방법 등 알찬 정보를 담았다. 재료와 요리 과정이 정갈하고도 생생한 사진으로 담겨 있다.

음악이 파도로 밀려오는 해변의 뮤직 페스티벌

을 여름, 바다로의 여행을 계획한다면 뮤직 페스티벌을 추가해 보는 것이 어떨까.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전국 곳곳의 해변에서 다양한 뮤직 페스티벌이 열린다. 파도가 몸을 시원하게 식혀 준다면 음악은 머리 속에 남아있는 일상을 완벽하게 씻어낸다. 바다와 음악, 스포츠와 휴식이 함께하는 해변에서 2018년 여름의 추억을 만들어 보자.

파도에 WAVE, 음악에 GROOVE

미드나잇 피크닉 페스티벌 강원도 고성 삼포해수욕장

2018년 7월 13일(금)부터 15일(일)까지 3일간 강원도 고성군 삼포해수욕장에서는 <미드나잇 피크닉 페스티벌 고성>이 열린다. <미드나잇 피크닉 페스티벌 고성>의 특징은 서핑 등 해양 스포츠와 함께한다는 것. 낮에는 서핑이나 SUP(패들보드) 강습을 신청하여 파도에 몸을 맡기고 밤에는 공연장에서 화려한 조명과 음악에 흠뻑 취해 보자.

첫째 날인 13일에는 프리 서핑 후 JUNCOCO, VANDAL ROCK, FUKKEUL, DART 등 국내 정상급 클럽 DJ들이 메인스테이지를 채운다. 14일에는 서핑 및 SUP 강습과 피크닉 스테이지에서의 DJ 박스로 활기찬 낮을 만든 후 현아와 GRAY, NUCKSAL, DJ DUC 라인업의 비치 콘서트와 불꽃놀이가 밤의 해변을 채울 예정이다. 마지막 날에는 패들링 레이스, DJ 박스 외에도 Beach ART, Beach Sweat, Beach Market 등 비치 라이프를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부스가 마련된다. 또한 Beach Clean 순서를 만들어 행사 후 해변을 깨끗이 치우는 활동도 함께한다. 여름 바다의 밤과 낮, 스포츠와 음악을 100퍼센트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된 <미드나잇 피크닉 페스티벌 고성>의 비치 페스티벌 및 서핑 강습권, 셔틀버스 등의 티켓은 인터파크, 티켓링크, 티몬 등에서 구매할 수 있다.

홈페이지 www.mipic.co.kr

푸르른 바다, 한여름의 뮤토피아

그린플러그드 동해 2018 강원도 동해 망상해수욕장

7월 21일(토)과 7월 22일(일)에는 강원도 동해시 망상 해변에서 <그린플러그드 동해 2018>이 열린다. <그린플러그드 동해>는 무엇보다 화려한 라인업으로 눈길을 끈다.

먼저 평창 동계올림픽 무대에도 올랐던 하현우가 속한 국카스텐, 놀라운 에너지로 관객을 빠져들게 만드는 로맨틱 펀치가 폭발적인 가창력으로 한여름 밤 해변

의 열기를 더할 예정이고 매력적인 보이스의 새소년, 청량한 사운드가 여름과 잘 어울리는 전기뱀장어 등도 출연한다. 이번 페스티벌에서는 장르를 확장하여 EDM 팬들이 반길 무대도 마련되었다. 세계적인 DJ 듀오 Garenz, EDM 장르에 대중적인 감성을 가미한 SHAUN, 한국의 대표 Future Bass DJ이자 프로듀서인 PURE 100%, 장르의 구분 없이 댄스 플로어를 뒤흔드는 VANDI 등의 무대이다. 또한 3호선 버터플라이의 전 리더 성기완을 주축으로 서아프리카 전통 타악기 연주자와 보컬리스트 한여름으로 구성된 월드뮤직 트리오 AASSA와, 자메이카의 음악 스타일을 한국적 감성으로 풀어내는 킹스턴 루디스카가 합류하여 이국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줄 것이다. <그린플러그드 동해 2018> 티켓은 멜론티켓, 하나티켓, 인터파크와 네이버 예약 등을 통해 구매할 수 있으며 일반 공연 관람권 외에도 망상 해변의 특성을 고려해 다양한 캠핑 패키지가 준비되어 있다.

홈페이지 www.gpdfestival.com

NO TICKET! NO TRASH!

스테핑 스톤 페스티벌 제주도 함덕해수욕장

음악을 좋아하는 이들이 하나 둘 모여 시작된 제주의 스테핑 스톤 록 페스티벌은 제주 음악문화의 디딤돌을 뜻한다. 2011년부터 함덕해수욕장에 자리를 잡아 대표적인 제주의 여름 음악 축제로 매년 열고 있는 스테핑 스톤 페스티벌이 올해도 역시 같은 장소에서 7월 13일, 14일 양일간 진행된다.

대한민국 록의 자존심인 갤럭시 익스프레스를 비롯, 구남과여라이딩스텔라와 소울 걸그룹 바버릿츠, JAMBINAI, ADOY, MYOHAN, SAY SUE ME, 아폴로 18의 최현석이 꾸린 프로젝트 그룹 CHS 등이 참여하고 해외 팀으로는 후지락 페스티벌에도 참가한 REGGAELATION INDEPENDANCE(JAPAN), 아시아 여성 밴드 중 최고의 실력파인 GDJYB(HONG KONG), 대만 모던록 밴드 shallow levée(TAIWAN) 등의 밴드가 찾아온다. DJ로는 한국에서 영화 음악감독으로 널리 알려진 달파란과 라틴 음악을 플레이하는 청달, 슈가 석울, 스카 챔피언, 일본에서 藤井悟 aka Satol, F(Caribbean Dandy), TXAKO(Caribbean Dandy) 등이 참석한다.

행사에는 공연 외에도 다양한 부스와 환경 프로그램이 만들어질 예정이다. 스테핑 스톤 페스티벌은 티켓이 없는 무료공연으로, 관객에게 자을 기부금을 받아 제주의 환경운동을 돕는다.

홈페이지 ststjeju.com

여름은 바다, 바다는 이곳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에는 해수욕장도 많다. 뮤직 페스티벌은 그중 어느 해수욕장을 가야 할까 하는 고민을 줄여준 섬. 시원한 바다, 뜨거운 모래밭, 신나는 음악으로도 충분하지만 멀리까지 왔으니 해수욕장 주변 관광지도 챙겨 보자. 뜻하지 않은 추억을 만들 수 있다.

• 강원도 고성군 삼포

삼포해변은 바닷물이 가장 깨끗한 해변으로 조사되었던 곳이다. 폭 넓은 모래사장이 펼쳐져 있으며 수심도 깊지 않아 물놀이를 즐기기에 좋다. 근처 볼거리로는 10분 거리의 고성 왕곡마을이 있다. 영화 <동주>를 촬영했던 이 마을은 전통 한옥과 초가집들이 잘 보존되어 과거에 멈춰진 시간 속으로 여행을 떠날 수 있다. 전통한옥 숙박 체험도 가능하니 하룻밤 머물며 시골 정취도 느껴보는 것은 어떨까. 송지호 호수와 청간정도 빠뜨리면 아쉬운 명소다. 송지호에는 오토캠핑장도 조성되어 있어 바다와 호수, 숲을 즐길 수 있다.

• 강원도 동해시 망상

묵호항에서 북쪽으로 3km쯤 떨어져 있는 망상해변은 얕은 수심과 청정해수, 넓은 백사장과 울창한 송림으로 매년 600~700만 명의 피서객이 즐겨 찾는 곳이다. 특히 국내 최초로 조성된 자동차 전용 캠핑장 망상오토캠핑리조트에는 카라반과 통나무집 등도 있어 일찌감치 예약하여 즐기기에 좋다. 또한 망상 제2오토캠핑장은 해변 바로 앞에 위치해 있어 바닷물까지 뛰어드는 데 1분이면 충분하다. 망상해변은 인근에 천곡 자연동굴과 무릉계곡, 추암촛대바위가 유명하며 남쪽으로는 노봉, 대진, 어달, 한섬, 감추, 추암 등의 간이해수욕장이 이어진다.

• 제주도 조천읍 함덕

제주의 해수욕장 중 바다색이 가장 예쁜 3곳이 협재, 김녕, 함덕이라 한다. 키 큰 야자수와 흰 모래, 에메랄드빛 바다가 이국적인 이곳에는 피크닉하기 좋은 잔디밭과 산책로가 있으며 여름에는 야간에도 개장하여 제주의 푸른 밤을 바다에서 즐길 수 있다. 바다 위 구름다리를 건너는 것도 특별한 경험이며 바로 옆의 서우봉에 오르면 함덕해수욕장의 아름다운 물빛이 한눈 가득 담기고 날씨가 좋으면 한라산과 동쪽 오름들도 내려다보인다. 주변 관광지로는 북촌 돌하르방공원, 너븐숭이4.3기념관, 조천만세동산, 김녕해수욕장, 만장굴 등이 있다.



고성 왕곡마을



망상해변과 한옥



망상오토캠핑리조트



함덕해수욕장

사진·제주관광공사 비짓제주(VisitJeju.net)

N O R O O P E O P L E

예술 작품이 보여주는
전통과 현대의 조화는
바로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화학과 농생명이 만나고
창업정신의 사명과 내일을 향한 비전이
조화를 이루어 73년 NOROO는
100년 너머의 미래를 꿈꿉니다.

NOROO, 한마음으로 미래를 꿈꾸다

농생명 사업 부문 NOROO 문화 공유 워크숍

지난 5월 29일, 안양의 (주)노루페인트 본사에서는 뜻깊은 행사가 준비되었다. NOROO의 농생명 사업 부문 신규 입사자를 대상으로 NOROO 문화를 공유하는 워크숍이 열린 것이다. 이날 참가자들은 NOROO의 사료전시실을 관람하고 (주)노루페인트의 도로 생산라인을 견학하며 NOROO 그룹의 기틀인 화학 부문 사업의 의의와 73년 NOROO 역사를 마음 속에 새길 수 있었다.



안양의 중앙연구소 교육장에 준비된 행사는 참가자들의 상호 소개로 시작되어 (주)노루페인트 경영전략팀 박상훈 차장이 '창업과 현재'라는 주제로 NOROO 그룹의 연혁과 계열사 구조를 설명하면서 본격적 순서로 들어갔다.

두 개의 성장동력, 화학과 농생명

NOROO 그룹은 73년 성장 역사의 동력이 되어 온 화학 산업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농생명 분야에 적용하여 농산물의 유통과 가공, 판매, 종자 개발 등의 새로운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2012년 (주)노루기반시스템즈를 설립하여 농생명 ICT 융합 솔루션 연구개발과 스마트팜 토털 솔루션을 공급하는 데 이어, 첨단 온실 설계 및 시공과 농산품 브랜딩을 전개하는 (주)노루기반, 농업의 기초인 종자산업의 발전을 이끌 (주)티기반 등을 설립, 미래의 먹거리를 책임질 농생명 사업을 NOROO의 두 번째 성장동력으로 키워가는 중이다. NOROO의 화학 부문이 지금까지 성장해 올 수 있었던 데에는 국가의 미래를 생각한 “사업보국”이라는 창업이념과 함께 NOROO인들의 단결과 합심이 있었던 만큼, 서서히 성장세를 키워가는 농생명 산업에

서도 이러한 NOROO의 정신은 새롭게 합류한 직원들에게 반드시 공유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마련된 이번 워크숍은 농생명 부문 구성원들이 NOROO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고 함께 더욱 발전할 미래를 꿈꾸는 자리가 되었다.

NOROO의 역사와 조직, 기술을 느끼다

안양의 중앙연구소 교육장에 준비된 행사는 참가자들의 상호 소개로 시작되어 (주)노루페인트 경영전략팀 박상훈 차장이 '창업과 현재'라는 주제로 NOROO 그룹의 연혁과 계열사 구조를 설명하면서 본격적 순서로 들어갔다. 평소 숫자로만 존재하던 40여 개의 계열사와 조직 구조는 각각의 스토리들이 덧붙여지면서 참가자들에게 그 구체적인 규모와 사업의 방향성을 실감케 했다. 구내식당에서의 점심식사 후 이동한 본관



NOROO는 이제 화학과 농생명이라는 두 개의 엔진으로 또다시 '세상에 없는 길'을 새로이 만들고 달려가는 중이다. NOROO의 경영철학과 비전, 핵심가치와 문화를 공유한 이번 워크숍은 그 엔진들을 더 단단히 결합시킨 자리였다.

1층 사료전시실에서는 (주)노루페인트 김기도 부장과 고재수 차장이 관람을 도왔다. 사료전시실은 최초의 도료 생산 설비였던 가마솥 등 지난 역사를 보여주는 물품들을 보존하고 진열하여 NOROO의 역사를 일깨우는 곳이다. 현재의 첨단 설비와는 너무나도 다른 과거의 자료와 발전의 궤적을 살펴본 참가자들은 “그룹의 오랜 역사가 피부로 와 닿았다.”는 소감을 전했다. 곧이어 공장 투어에서는 수성과 유성도료, 수지 생산 라인을 돌아보며 실제 도료 생산 과정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안내를 맡은 (주)노루페인트 품질관리팀 김갑호 부장, 도료생산2팀 박창영 부장, 수지생산팀 이명로 부장은 전문성과

풍부한 식견을 담은 설명으로 화학 부문이 낯설 참가자들이 도료 제조의 원리와 과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왔다.

창업정신 아래 하나되어 미래로

사료전시실과 공장 투어를 통해 NOROO의 과거와 현재를 체험하고 중앙연구소 교육장으로 돌아온 참가자들은 (주)노루로 지넷 김장호 대표가 준비한 강연으로 NOROO의 철학과 문화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었다. 1990년에 입사하여 28년째 근무 중인 김장호 대표는 기업 연대기에는 적히지 않은 여러 에피소드를 이야기하며 'NOROO Way'로 집약된 경영

철학과 이념을 구체적으로 풀어냈다. 그는 “지게차 운전을 할 때도 ‘나는 고객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태도가 달라진다.”고 설명하며 ‘나의 조국을 위하여’라는 사업보국의 창업정신을 확실히 내재화할 때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의 가치를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사람 사이의 ‘정’이 구심점이 되는 NOROO의 문화 속에서 서로 따뜻함을 나누고, 일의 가치와 함께 자신의 가치도 함께 세워나감으로써 사회에 공헌하며 개인적 발전도 이루어나갈 것을 조언하기도 했다.

행사를 마치며 소감을 나누는 시간, (주)노루기반시스템즈의 이화진 대리는 “이번 교육은 NOROO의 길을 돌아보게 하고, 농생명 사업부가 나아갈 길을 생각하게 한 시간”이었다며 업무의 가치를 발견하고 더욱 정진할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입

사한 지 한달이 채 안되었다는 (주)더기반의 오준호 주임은 “신입사원 교육에 이어 이번 교육을 통해 하나하나 채워지고 성장해 가는 기분”이라며 “NOROO인으로서 제 몫을 하는 인재가 되겠다.”고 포부를 세웠다. 다른 참가자들 또한 “NOROO의 역사를 이해하고 NOROO인으로서 소속감을 느낄 수 있었던 자리이자 여러 계열사 분들을 만나 이야기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밝혔다.

73년 역사 속에서 NOROO는 도전과 혁신으로 불모의 땅에 NOROO만의 길을 만들어 왔다. 그리고 이제 화학과 농생명이라는 두 개의 엔진으로 또다시 ‘세상에 없는 길’을 새로이 만들고 달려가는 중이다. NOROO의 경영철학과 비전, 핵심가치와 문화를 공유한 이번 워크숍은 그 엔진들을 더 단단히 결합시킨 자리였다.



NOROO와 토요타, 페인트로 꽃을 피우다

NOROO-TOYOTA와 함께하는 GREEN ART CAR 페인팅 클래스

지난 5월, 분당 토요타 전시장에서는 특별한 클래스가 열렸다. 20년간 주행해 온 토요타 차량에 (주)노루페인트의 친환경 프리미엄 페인트인 팬톤 페인트로 꽃을 그려 넣는 GREEN ART CAR 페인팅 클래스였다. 클래스에 초대된 토요타 VIP 고객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아름다운 작품을 함께 완성했다.



친환경 페인트의 선두주자인 (주)노루페인트는 그 뜻을 함께하여 분당 토요타 전시장에서 행사를 함께 진행한 바 있다. 지난해 고객이 직접 목공 소품을 만들고 친환경 페인트로 칠해 보도록 DIY 페인팅 클래스를 연 데 이어 이번에는 차에 꽃을 그림으로써 친환경 이미지를 전달하고자 한 것이다.



친환경으로 뜻을 함께하다

대기오염에 민감해지는 요즘, 미세먼지 수치가 위험하게 올라가는 날이면 행정기관은 자동차 운행율을 낮추기 위해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하곤 한다. 그만큼 자동차가 대기오염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자동차 업계는 석유가 아닌 대체 에너지를 사용하여 오염 발생을 낮추고자 노력해 왔다. 토요타 역시 친환경을 중요한 과제로 삼아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다양한 모델을 발표하며 친환경 관련 행사를 꾸준히 열고 있다.

친환경 페인트의 선두주자인 (주)노루페인트는 그 뜻을 함께하여 분당 토요타 전시장에서 행사를 함께 진행한 바 있다. 지난해 고객이 직접 목공 소품을 만들고 친환경 페인트로 칠해 보도록 DIY 페인팅 클래스를 연 데 이어 이번에는 차에 꽃을 그림으로써 친환경 이미지를 전달하고자 한 것. 행사를 기획한 분당 토요타 전시장의 유오영 대리는 “분당 토요타 전시장은 2015년에 세계멸종위기 동물 사진전을 열고, 폐차의 자동차 부품으로 디오라마를 만드는 등 환경 관련 활동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신차를 구매하며 폐차를 하는 손님께는 폐차의 부품으로 피규어를 만들어 드리기도 하고요. 이번에는 노루페인트와 토요타의 협업, 그리고 고객의 참여를 통해 20년 된 차에 아름다운 자연을 입혀 보고자 합니다.”고 밝혔다.





꽃을 입고 자연으로 돌아가다

이번 행사 차량은 토요타가 1998년에 미국에서 출시한 아발론 모델로 고객이 구입 후 운행하다가 한국에 가져온 것이다. 그리고 최근 하이브리드 캠리를 구매하면서 기증하여 의미 있는 행사를 만들게 되었다. 20년 동안 성실히 달려온 차를 꾸며준 꽃들은 명예로운 퇴역을 축하하는 화환처럼 보였다. 팬톤 페인트의 화사하고 선명한 컬러로 고객들이 한 송이 한 송이 그려 넣은 꽃들은 차를 자연 속으로 돌려놓았다. 이제 이 차는 GREEN ART CAR로 분당 토요타 전시장에 전시되어 친환경 기술을 통해 미래로 달려나가는 신차들을 응원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자동차가 꽃처럼 향기로워질 언젠가의 미래를 그려보게 할 것이다.

페인트로 피어난 꽃

행사가 열린 토요일 오후, 분당 토요타 전시장 2층으로 참가자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대부분이 자녀를 동반한 가족 고객들로, 아이들은 차에 페인팅을 해 볼 수 있다는 기대감에 눈을 반짝였다. 자동차란 흠집이 나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하는 것이었는데 다양한 컬러로 자유롭게 칠해볼 수 있단니 신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저희가 준비한 스텐실 도안을 이용해 페인팅해 주시면 됩니다. 수성 페인트라 물로 쉽게 닦이니 손에 묻는 것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노루페인트 마케팅전략팀 권미경 과장과 강사들의 안내에 따라 참가자들은 각각 자리를 잡고

붓을 들었다. 자연의 느낌을 풍성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Sachet Pink, Blue Atoll, Vibrant Yellow, Amethyst Orchid 등 15가지 컬러로 준비된 팬톤 페인트는 참가자들의 붓을 통해 점점 꽃으로 피어났다.

“냄새가 하나도 나지 않네요.”, “너무 재미있어요.”, “차가 꽃밭이 되는 것 같아요.”라며 참가자들은 예정된 두 시간을 훌쩍 넘겨서도 붓을 놓지 않았다.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페인팅의 재미에 흠뻑 빠진 모습이었다. 토요타와 (주)노루페인트가 준비한 선물 꾸러미를 받아 들고 행사장을 나서면서도 눈은 차에서 떼지 못했다. 두 시간 만에 차는 꽃비를 맞은 듯 변해 있었다.

GREEN ART CAR

팬톤 페인트의 화사하고 선명한 컬러로 고객들이 한 송이 한 송이 그려 넣은 꽃들은 차를 자연 속으로 돌려놓았다. 이제 이 차는 GREEN ART CAR로 분당 토요타 전시장에 전시되어 친환경 기술을 통해 미래로 달려나가는 신차들을 응원하게 될 것이다.



전통과 현대의 정수를 이어 새기다

소병진 소목장과 아티스트 크립틱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3일까지 열린 한옥박람회의 예술관 내 BACK ROOM 기획관에서는 독특한 작품이 눈길을 끌었다. 한국의 전통적인 목재와 기법에 만다라를 연상케 하는 문양이 새겨진 책장이었다. 책장의 작은 문 안에도 숨은 듯 자리한 만다라는 마치 책이 품은 진리를 보여주는 듯했다. 책장을 만든 이는 국가무형문화재인 소병진 소목장, 문양을 새기고 그린 이는 미국의 컨템퍼러리 아티스트 크립틱(CRYPTIK)이다. NOROO의 후원으로 이루어진 그들의 콜라보레이션 작품은 전통과 현대를 단단히 이은 매듭과도 같았다.

전통을 만든다

한옥박람회가 열리기 전, 전라북도 완주에 자리한 소병진 소목장의 전주장 연구소에서는 뜻깊은 만남이 있었다. 콜라보레이션 작업을 위해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한국을 방문한 크립틱 작가가 이곳을 찾은 것이다.

소병진 소목장은 국가무형문화재 제55호, 대한민국 명장 가구 제작1호, 대한민국 전승공예대전 <대통령상> 수상 등 화려한 이력을 지닌 명장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 빛을 발하는 것은 그의 작품이다. 전통적 재료와 기법을 사용해 일일이 손으로 깎고 다듬어 짜 맞춘 그의 가구는 오랜 시간 매만져진 단단한 힘에 단아한 아름다움이 어우러져 완벽한 조형성을 보여준다. 그는 전통 기술과 예술성을 보유한 무형문화재이지만 새로운 시도도 주저하지 않는다.

“시대와 함께 생활양식도 좌식에서 입식 생활로 바뀌는 등 변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가구도 새로워져야 하지요.” 크립틱 작가에게 자신의 작품 세계를 설명하며 소병진 목장은 한국 가구의 우수성을 강조했다. “기능인들의 수작업은 어떤 인공지능도 못 따라올 것입니다. 특히 한국 장인들의 가구는 그 우수성이 매우 뛰어나죠. 그러나 국제적으로 홍보가 되지 않아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적인 디자인과 콜라보레이션 등으로 새롭게 발전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지요.” 소병진 소목장은 후대를 위해 스스로 앞서 변화를 일으키는 중이다. 그의 노력을 잘 알기에 한옥박람회를 주관한 월간 한옥과 예술관의 기획관을 준비한 WTFM이 이번 콜라보레이션을 제안하고 NOROO에서 후원하여 크립틱 작가와의 합작품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전통적 재료와 기법을 사용해 일일이 손으로 깎고 다듬어 짜 맞춘 소병진 소목장의 가구는 오랜 시간 매만져진 단단한 힘에 단아한 아름다움이 어우러져 완벽한 조형성을 보여준다.



소 병 진 소 목 장

X

아 티 스톨

C R Y P T I K



法古創新

서로의 생각을 나누며 더욱 깊이진 이해로 마침내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작품이 완성되었다. 소병진 소목장의 현대적 디자인에 크립틱 작가는 민화에서 차용한 연꽃 문양과 '법고창신'을 전하는 레터링을 넣어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냈다.

정수를 담다

소병진 소목장의 안내를 받아 전주장 연구소의 전시장에 들어선 크립틱 작가는 목가구와 연장을 보며 연신 감탄했다. <LA의 앤디 워홀 벽화>로 유명하며 미국을 중심으로 국제 무대에서 활동해 온 한국계 미국인 크립틱 작가에게 한국은 특별한 나라다. 작년 <POW!WOW! × NOROO in Korea>를 위해 한국을 방문했을 때 자신의 뿌리를 느끼게 된 그는 이번 콜라보레이션에 한층 깊은 의미를 두었다고 한다.

그의 작품은 만다라 문양으로 대표된다. 만다라는 '본질의 소유'를 의미하며 다양한 신앙 형태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불화이기도 하다. 크립틱 작가는 이를 철학적으로 해석, 예술 작품으로 보

여주었다. "단순히 시각적인 것에서 나아가 심리적으로도 도움이 되는 작품을 하고 싶었습니다."라며 그는 작품의 시작을 설명했다. "전세계 어디에서나 발견할 수 있는 만다라는 정수(精髓)로의 집중을 도와줍니다."라고 말한 그는 소병진 소목장에게 이번 작품의 의의를 물었다. "법고창신! 옛 것을 본받아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것이죠."라는 대답은 곧 크립틱 작가가 담아낼 정수가 되었다.

NOROO로 잇다

서로의 생각을 나누며 더욱 깊이진 이해로 마침내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작품이 완성되었다. 소병진 소목장의 현대적 디자인에 크립틱 작가는 민화

에서 차용한 연꽃 문양과 '법고창신'을 전하는 레터링을 넣어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냈다. 크립틱 작가는 서로 언어는 달랐지만 컬러를 통해 소통하면서 컬러의 힘을 다시 느꼈다고 밝혔다.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SETEC)에서 열린 한옥박물관의 BACK ROOM 기획관에 전시된 작품은 많은 관람객에게 찬사를 받으며 한국 가구의 대담함을 발견케 하는 계기가 되었다. 노루페인트로 그려진 문양은 두 작가를 가구 위에서 만나게 했다. NOROO는 지난해 <POW!WOW! × NOROO in Korea>로 길 위에 예술을 세운 데 이어 올해에는 전통과 현대가 단단히 매듭지어질 수 있도록 도왔다. 만들고 칠하는 예술이 있는 곳, 컬러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NOROO가 있다.



가족의 행복이 빛나는 네온사인

㈜노루기반 영업지원팀 유승남 차장 가족

개그우먼 박나래의 ‘나래 바’를 상징하는 네온사인이 인테리어 소품으로 인기를 모으고 있다. 네온사인 하나만으로도 색다른 분위기가 연출되는 데다가, 자신이 원하는 글귀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밤거리를 밝히는 간판들의 네온 사인과 달리, 개인 공간의 네온사인은 그야말로 나만의 ‘Sign’이 된다. 나의 개성을 담아 빛날 Sign을 만들기 위해 ㈜노루기반 영업지원팀 유승남 차장 가족이 나섰다.

Do My Best

체험이 있던 토요일은 신록이 눈부신 5월. 며칠간 이어진 폭우가 그친 덕분에 나무는 물론 공기까지 윤이 나도록 화창한 날이었다. 모처럼의 나들이와 촬영을 위해 화이트 톤의 옷을 맞춰 입고 나란히 앉은 유승남 차장과 가족들도 날씨처럼 환한 표정이었다. “자, 먼저 자신이 만들고 싶은 네온사인의 도안을 그리거나 써 볼게요. 너무 잘 쓰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략의 사이즈와 위치를 정한다고 생각하세요.” 체험을 진행하는 강사로 나선 명랑상회의 원형교 대표는 밑그림용 종이를 나눠주며 설명을 시작했다. 명랑상회에서 사용하는 폴록와이어 네온사인의 제작 순서는 대략 이렇다. 종이에 밑그림을 그려 투명 아크릴판 아래 임시 고정한 뒤, 원하는 색의 폴록와이어를 아크릴판 위에서 밑그림을 따라 모양 잡아 순간접착제로 고정한다. “한글도 가능하지만 영문이 더 쉬우실 거예요. 와이어로 표현해야 하기 때문에 꺾이는 부분이 많지 않은 영문 필기체가 가장 적합하죠.” 어떤 사인을 만들까 고민하던 가족들은 안내에 따라 연필을 잡고 속삭삭삭 종이를 채우기 시작했다. 유승남 차장은 가족의 행복을 바라는 ‘Be happy’, 부인인 장남희 씨 역시 안락한 집을 완성할 ‘home sweet home’, 장남인 유원선 군은 ‘Do My Best’, 그리고 차남인 유도현 군은 배트맨 사인이다.



본격적인 와이어 작업에 들어가자 가족들의 집중도는 더욱 높아졌다. 각자의 작품 위에 허리를 굽히고 손가락으로 꼭꼭 짊어가며 모양을 만들어갔다.





‘Do My Best’를 선택한 이유를 묻자 올해 중3인 유원선 군은 자신의 꿈인 의사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싶다고 밝게 웃으며 답했다. 학교에서 성격 검사를 해 보니 타인을 돕는 성향이 강하다는 결과가 나왔고 어떤 도움이 좋을까 생각해 본 결과 의사를 선택했다는 것이다. 보통은 부모가 원할 법한 목표를 스스로 정했다는 것도 신선했지만 무엇보다 그 동기가 선택하여 저절로 미소가 지어졌다. 아들의 대답에 자랑을 엿을 법도 한데 부모인 유승남 차장과 장남희 씨 역시 편안한 웃음만 더할 뿐이었다.

Be Happy

강사는 가족들의 도안을 살펴 크기를 조정하고 밑그림을 고정해 준 뒤 다음 순서로 이끌었다. “풀롱 와이어는 피복 내에 철사가 내장되어 있어서 제작이 쉬워요. 커넥터 쪽에서 시작점을 잡아 풀롱와이어를 절연테이프로 고정시켜 주세요. 와이어를 잘 보면 빛이 더 확실한 쪽이 있으니 그 쪽이 앞으로 오도록 부착하시면 됩니다.”

본격적인 와이어 작업에 들어가자 가족들의 집중도는 더욱 높아졌다. 각각의 작품 위에 허리를 굽히고 손가락으로 꼭꼭 짚어가며 모양을 만들어갔다. 유도현 군도 엄마와 강사의 도움을 받아 배트맨 사인을 완성, 가장 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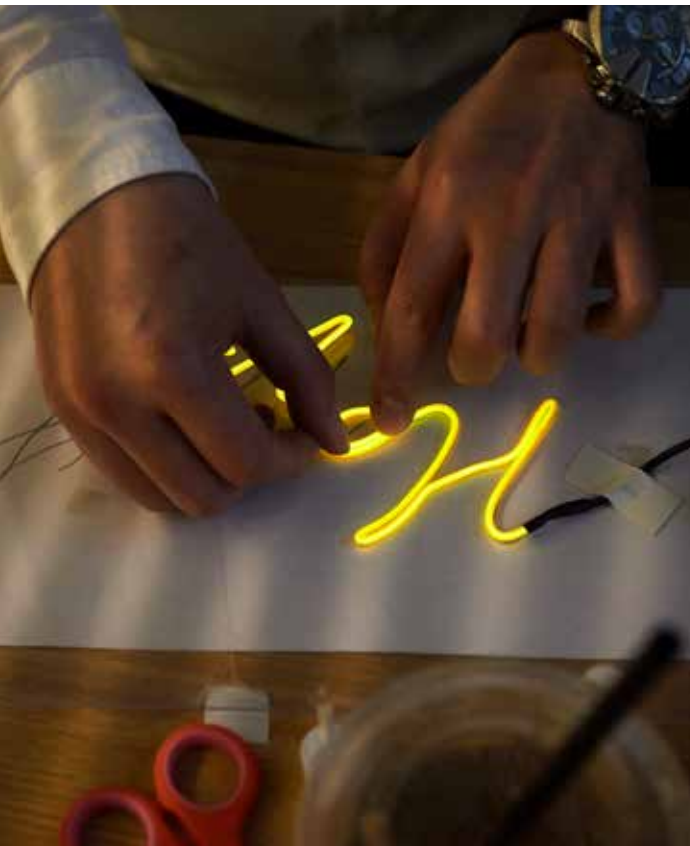
저 결과물을 내었다. 전원을 켜자 노란 불빛에 당장이라도 배트맨이 날아올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우와~ 멋진데?”, “도현이가 제일 먼저 했어!” 작업에 열중하던 가족들도 잠시 손을 멈추고 도현 군의 작품에 열광했다. 도현 군과 원선 군의 신난 얼굴에 유승남 차장과 장남희 씨도 더욱 기쁜 표정이다. “아이들 나이 차도 있고, 원선이 학업 때문에 주말 나들이가 쉽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모두가 집중하며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라 참 좋네요.” 장남희 씨의 말에 유승남 차장도 “만들다 보니 이런저런 잡념을 잊게 돼요. 아이들도 즐거워하고요.”라며 공감했다.

Home Sweet Home

드디어 모두의 작품이 완성되어 한 자리에 모였다. 강사는 “가족이 참여한 것은 처음인데 훨씬 속도도 빠르고, 숨씨들도 좋다.”면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가족들 역시 서로의 작품을 보며 뿌듯한 얼굴이다. 이제 네온사인들은 이 따뜻한 가족의 공간에 걸려 지금을 기억하게 할 것이다. 바쁜 업무들과 학업에서 돌아와 쉬는 포근한 밤에 은은하게 빛을 내며 조용히 마음을 전할 것이다. 행복하자고, 최선을 다하자고, 그리고 우리는 서로를 든든히 지켜줄 것이라고 말이다.

명랑상회

네온사인 만들기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하는 명랑상회는 온라인에서 네온사인 DIY 제품도 판매한다. 와이어와 전원 스위치, 커넥터 등 부자재를 구입할 수 있으며 아크릴판 외에도 캔버스, 알루미늄 바 등의 다양한 부착판에 네온사인을 꾸밀 수 있도록 제품이 구비되어 있다. (네이버 쇼핑 - 명랑상회)





NOROO 그룹, 伊 건축 사무소 ‘MIGLIORE+SERVETTO’와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노루페인트, DMZ 부근 평화마을 조성 벽화 사업 지원

(주)노루홀딩스

NOROO 그룹, 伊 건축 사무소 ‘MIGLIORE+SERVETTO’와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노루홀딩스는 이탈리아 건축 사무소 ‘MIGLIORE+SERVETTO Architects(이하 M+S Architects)’와 전략적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 신사업 협력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해 글로벌 시장 진출에 나선다. 사업전략 부문장인 한원석 전무가 추진한 이번 계약으로 NOROO 그룹은 73년간 축적된 ‘색(色)’에 대한 정보와 경험, 영향력을 세계 건축 시장에 확대하는 신규 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M+S Architects’는 세계적인 패션 기업 막스마라의 전속 공간 디렉터이자, 뉴욕현대미술관의 공간 디자인을 총괄한 이코 밀리오레와 그의 아내이자 건축가인 마라 세르베토가 1997년 밀라노에 설립한 건축 사무소이다. 토리노 동계 올림픽을 위한 <토리노 도시 재생 프로젝트> 등 유럽 곳곳의 랜드마크를 디자인했으며 국내에서는 <막스마라 코트(Coats!) 서울 전시회> 등으로 화제를 모았다. 최근에는 이탈리아의 명품 가구 브랜드 미노티(Minotti) 사의 창립 70주년 행사를 몬차 성에서 진행하여 유럽 언론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앞으로 NOROO와 M+S Architects는 세계 건축, 패션, 트렌드의 중

심지인 밀라노에서 다양한 프로젝트와 신규 비즈니스를 추진하고, M+S Architect의 아시아 시장 진출 및 장소 제공에 협력하여 디자인과 문화, 예술적 영감의 교류를 새로운 건축 디자인을 통해 선보일 예정이다. NOROO 그룹은 이번 제휴를 통해 시장에 대한 타겟을 아시아와 유럽으로 확대하여 그룹의 영향력을 해외로 넓히고, 글로벌 리딩 컬러 컴퍼니로 우뚝 서고자 그룹의 노마드 정신을 전략에 반영, 실행해 갈 계획이다.

(주)노루페인트

철원군 김화읍 DMZ 부근 평화마을 조성 벽화 사업 지원

㈜노루페인트는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도창리 소재 평화마을 조성을 위한 벽화사업에 친환경 페인트 전량을 지원하고 있다.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에 발맞추어 남북 평화 기원을 위해 지난 4월 27일부터 진행된 평화마을 조성 벽화사업은 도창마을의 주 도로에 인접한 주택 70호의 벽면에 평화를 상징하는 벽화를 그리는 것이다. 이 사업은 김화읍 사무소와 관내 미술 담당 교사 및 고등학생 연합 미술 동아리가 주축이 되어 오는 11월 25일까지 진행된다.



마크앤& <인생사진관 시즌2> 콜라보레이션 진행



공기 정화 효과의 팬톤에어프레쉬 페인트 출시

철원 도창마을은 DMZ와 가장 가깝고 북한으로 향하는 길목에 위치하여 평화를 상징하는 의미가 크다. 철원군은 이번 사업을 계기로 도창마을을 ‘평화마을’이라고 명명하고 다양한 문화 플랫폼으로 활성화해 지역을 발전시킬 계획이다. ㈜노루페인트는 벽화 기획과 주택 벽면의 보수도장을 진행했으며 향후에는 지역 활성화를 위한 색채기획도 제안하는 등 평화마을 조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노루페인트 관계자는 “이번 벽화는 친환경 수성페인트로 완성한 후 보존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새로이 개발된 벽화 탈색 보호재인 ‘큐피트 클리어코트’로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평화마을이 남북간의 평화와 희망을 보여주는 마을로 변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루페인트, 마크앤& <인생사진관 시즌2> 콜라보레이션 진행

㈜노루페인트는 전시 기획업체인 ‘마크앤’과 손잡고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 에스팩토리에서 8월 5일까지 열리는 <인생사진관 시즌2>에 컬러 콜라보레이션 작업을 진행했다.

특별한 공간에서 자신의 아름다운 사진을 남길 수 있는 <인생사진관 시즌 2>는 2017년에 가장 주목받는 전시회로 꼽힌 바 있다. 더욱 업그레이드된 이번 전시에는 280평 규모에 24개의 촬영 부스가 마

련되었고, ㈜노루페인트는 아트웍을 담당하는 ‘벨리시마 디자인 연구소’와 협업하여 트렌디한 컬러와 디자인으로 전시 공간을 꾸몄다. 특히 팬톤 페인트의 고채도 컬러는 공간을 다양하게 연출하여 이용객이 감성이 극대화된 예술적 사진을 소장할 수 있도록 도왔다. 벨리시마 디자인 연구소의 김지연 대표는 “노루페인트의 친환경 페인트는 가장 아름다운 컬러를 구현할 뿐 아니라 수많은 이용객의 장기간 방문에도 유지되는 내구성을 가지고 있다.”며 “이번 콜라보레이션으로 전시회가 더 큰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노루페인트, 공기 정화 효과의 팬톤에어프레쉬 페인트 출시

대기오염이 점점 심각해지는 요즘, 실내의 공기도 안심할 수는 없다. 마감재를 비롯해 각종 가구, 가정용품은 포름알데히드, 라돈 등 오염물질을 공기 중에 배출하여 인체에 해를 끼친다. 이는 천식 등 호흡기 질환과 아토피성 피부질환, 암의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한다. ㈜노루페인트는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최근 공기 정화 효과가 있는 기능성 친환경 페인트인 팬톤에어프레쉬를 출시했다. 이 제품은 전기의 치우침에 의한 물리적 흡착 현상을 이용하여 공기 중의 유해 성분을 빨아들이고 무해한 성분으로 변환시켜 실내 공기질 개선에 탁월한 성능을 보인다. 한국건설생활환경 시험연구원 시험 결

뉴스 브리핑



㈜노루페인트, 한국교통안전공단 / 계명대학교와 <교통안전 벽화 그리기> 실시



‘지붕을 시원하게, 집안을 시원하게’ 2018 쿨루프 캠페인

과 일반 수성 페인트 대비 11배 이상의 흡착율을 보였으며, 친환경 인증마크와 항균 마크를 인증 받았고, 국내 유일의 건강친화형 주택건설권장기준인 ‘흡착 건축 자재의 성능 평가 기준’을 획득했다. 1,500가지 팬톤 컬러로 자유로운 색채 구현도 가능하다. DIY 열풍 속에 페인트 인테리어가 각광받는 이때, 다채로운 컬러와 공기 정화 효과까지 보유한 팬톤에어프레쉬 페인트는 소비자의 고민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노루페인트, 한국교통안전공단 / 계명대학교와 <교통안전 벽화 그리기> 실시

㈜노루페인트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경상북도 김천시의 중산 초등학교 외벽 담장에 어린이 교통안전을 주제로 한 벽화 그리기 사회공헌활동을 6월 1일 실시했다. 이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임직원들이 기금을 모아 다양한 봉사활동을 추진하는 ‘함께 나누는 사랑’ 사업과 ㈜노루페인트가 지난 4월에 체결한 ‘자동차 사고 피해 가정 및 사회적 약자의 환경 개선’ 업무 협약의 후속 활동 중 하나로 이루어졌다. ㈜노루페인트는 공단이 자동차 사고 피해 가정 및 사회적 약자의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할 시 이에 필요한 친환경 페인트를 제공하기로 협약하였다. 이번 사회공헌활동에는 계명대학교 패션마케팅학과 교수진 및 학생 40명이 참여하여 ‘초등학생이 지켜야

할 교통안전’의 주제로 횡단보도 안전하게 건너기, 신호 잘 지키기 등의 메시지를 ㈜노루페인트의 생생한 컬러를 이용하여 벽화로 전달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권병운 이사장은 “벽화를 통해 어린이들이 교통안전 수칙을 더욱 친숙하게 접하게 되었다.”며 ㈜노루페인트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지붕을 시원하게, 집안을 시원하게’ 2018 쿨루프 캠페인

㈜노루페인트는 여름을 맞이하여 십년후연구소와 함께 지붕과 옥상에 차열 기능을 부여하는 <쿨루프 캠페인>을 재개하였다. 지난 2015년에 서울시와 함께 시작했던 <쿨루프 캠페인>은 지붕이나 옥상에 차열 페인트인 ㈜노루페인트의 ‘에너지세이버 쿨루프 수성페인트’를 시공하여 표면 온도를 20도 이상 줄이고 실내 온도를 4~5도 떨어뜨리는 활동이다. 일반적인 초록색 방수 페인트는 햇빛을 15~20% 반사하는데 ㈜노루페인트의 ‘에너지세이버 쿨루프 수성페인트’는 특수안료를 이용, 무려 80% 이상의 열을 반사시켜 실내 온도를 낮춘다. 콘크리트 옥상뿐만 아니라 일반 지붕에도 시공이 가능하며 미국의 에너지 절감형 도료 인증인 CRR(Cool Roof Rating Council)의 ENERGY STAR 인증을 획득했다. ㈜노루페인트는 고객의 주거 환경 개선과 에너지 절감을 위해 2,000억 규모로 추정되는 옥상 방수재 시장을 ‘에너지세이버 쿨루



㈜노루케미칼 / ㈜노루알앤씨, 2018 신소재 BG 노사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



㈜더기반, 터키 육셀토훔과 상호교류 업무협약 체결

프 수성페인트’로 집중 공략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노루페인트와 십년후연구소는 쿨루프 시공법을 익힐 수 있는 워크숍 현장을 준비, 참가 신청을 6월 21일까지 받아 <쿨루프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예년보다 더 더워질 것이라는 이번 여름은 ‘에너지세이버 쿨루프 수성페인트’의 효과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주)노루케미칼 / (주)노루알앤씨

2018 신소재 BG 노사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

㈜노루케미칼과 ㈜노루알앤씨는 6월 2일 안산시 소재의 선부동 배수지 체육공원에서 <2018 신소재 BG 노사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몸풀기 체조에서 시작된 행사는 각종 레크리에이션 게임과 단체 줄넘기, 족구 등으로 구성되어 모두가 재미있게 참여하면서 팀의 단결력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특히 마지막 순서인 계주에서는 참가자들이 혼신의 힘을 다한 질주로 응원의 열기를 더욱 높이기도 하였다. 총 90여 명이 참가한 이번 행사는 푸짐한 상품을 수여하는 시상 및 행운권 추첨으로 마무리되었다.

(주)더기반

㈜더기반, 터키 육셀토훔과 상호교류 업무협약 체결

㈜더기반(대표 최규설)은 터키의 종자 기업인 육셀토훔과 해외시장 개척 및 종자 관련 협력 관계 구축을 위한 상호교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터키에 본사를 둔 육셀토훔은 터키 정부로부터 종자 연구원 재단 인증서를 받을 정도로 활발한 연구를 하고 있으며 글로벌 시장에서도 높은 신뢰를 받고 있는 종자 전문기업이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두 기업은 상호교류와 판매 유통을 진행하여 해외 및 국내 시장에 우수한 채소 품종을 선보이는 Win-Win 성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된다. 최규설 대표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해외 채소 종자 시장에서는 더 기반의 위치를 다지고, 국내에는 전문성 있는 품종을 선보여 우리 농업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더 잘 노는 휴가를 위한 스마트한 앱

기다리고 기다리던 휴가! 어디를 갈까, 무엇을 먹을까 계획을 세우고 짐을 꾸리는 것과 함께 스마트폰에도 여행을 위한 앱을 구비해 완벽한 휴가를 만들어 보자. 여행 중 앱까지 낯설다면 귀한 시간은 버려지고 초조함만 더해진다. 미리 앱을 깔아두고 사용법을 익히면 스마트폰은 여행의 유용한 가이드가 되어줄 것이다.

하루 더 놀까?

놀다 보면 더 놀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 그럴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그럼 어디서 묵지?' 이다. 호텔과 펜션 등 숙소를 예약할 수 있는 숙박앱은 이럴 때 편리하다. 데일리 호텔, 호텔나우, 아놀자, 여기어때, 세일투나잇 등 다양한 앱이 걱정을 해결해 준다. 그중 데일리호텔은 앱 내에 '데일리고메'를 통해 레스토랑 할인 및 예약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다. 호텔나우는 최근 '액티비티' 예약 서비스를 국내 숙박 앱 최초로 선보였다. 수상레저와 각종 테마파크, 전시회 입장권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6월 한달 동안 신규 가입 회원에게는 15만 원 쿠폰팩도 제공하니 꼼꼼히 비교해 보자.

어디 주차하지?

휴가지까지 잘 달려와준 차이건만, 휴가지에 도착하는 순간 차는 빨리 주차하고 싶은 애물단지가 된다. 목적지 가까이 왔다면 '모두의 주차장'을 열고 가까운 주차장 정보를 찾아보자. 무료 주차장은 물론, 다양한 가격의 주차장 정보가 지도

위에 바로 뜬다. 제휴된 주차장은 앱 내에서 바로 결제도 가능하기 때문에 현금 등을 챙기지 않아도 된다. 모두의 주차장은 자신의 주차공간도 공유할 수 있다. 이 앱은 2015년 <구글플레이 올해의 앱>, 2016년에는 <정부 3.0 공로상 부문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바 있다.

다 먹고 싶은데!

휴가지에서의 식사는 또다른 즐거움이다. 하지만 때마다 맛집을 검색하는 것도 피곤한 일. 미리 앱을 깔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식단을 짜보는 것은 어떨까. 망고 플레이트는 서비스 지역이 다양하고, 네이버 블로그 검색 결과로 이어 볼 수 있어 편리하다. 거리순으로 검색할 수 있고, 가고 싶은 곳을 짚해 모아볼 수 있는 것도 장점. 카카오프레이스도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디너의 여왕은 <TASTE 신청하기>가 인기다. 블로그나 SNS에 식당을 홍보하는 조건으로 이용자의 신청을 받은 후, 당첨자에게 식당 무료 이용권을 제공한다. 여행 스케줄을 확정했다면 해당 지역의 식당에 TASTE를 신청해 뜻밖의 즐거움을 기대해 보자.



〈다시·세운 프로젝트〉협업지원센터의 박주용 박사와 오아영 홍보매니저님이 인터뷰 중 활짝 웃음꽃을 피우신 곳, <세운 테크북 라운지>입니다. 여러분도 세운상가에 가신다면 꼭 <세운 테크북 라운지>에 들러보시기 바랍니다. 재미있는 과학, 기술 서적이 엄선되어 있습니다. 시원한 라운지에서 두 분처럼 환하게 웃어 보세요!



GREEN ART CAR 페인팅은 오전부터 준비를 시작해 본 행사가 끝나고도 한참 뒤인 저녁이 되어서야 끝났습니다. 꽃이 가득한 차 앞에서니 수고해 주신 두 분도 마치 꽃처럼 보입니다. 고객들에게 페인팅의 즐거움을 선물하고 남은 차에 싱그러운 꽃의 아름다움을 담아낸 분당 토요타 전시장의 유오영 대리님과 ㈜노루페인트 마케팅전략팀 권미경 과장님입니다.



NOROO 문화 워크숍을 위해 ㈜노루페인트 안양 본사를 찾은 농생명 사업 부문 신규 임사자들이 본관 앞 한경대 선대 회장님의 동상 앞에서 단체사진을 위해 나란히 섰습니다. NOROO의 100주년에는 어떤 이들이, 어떤 사진을 남기게 될까요? 벅찬 다짐으로 그날을 그려봅니다.